

2주새 8% ‘금값 꺾춤’… 비트코인은 ‘제자리’

美 금리인상 전망에 금값 재상승
비트코인, 이달 0.35% 상승 그쳐

작년 알트코인 급락사태에 더해
클래리티법 지연도 코인에 악재
당분간 비트코인값 반등 어려워

금값이 최근 2주 동안 8% 넘게 올랐지만 한 때 ‘디지털 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뉴욕선물거래소(NYMEX)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거래된 12월 인도물 금 선물의 종가는 1트로이온스(31.1g)당 4437.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의 온스당 4107달러와 비교해 2주 만에 약 8%(330.3달러) 올랐다. 국제 금값은 주말 휴장을 마친 뒤 개장한 17일 거래에서도 개장 직후 약 30달러 상승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美 금리동결 전망…금값 ‘재점화’

앞서 국제 금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에 지난 1월 29일 온스당 5586.2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중동사태 발발에 따른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영향으로 금리 전망이 인상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국제 금값도 지난 7월에는 온스당 4000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최근 국제 금값이 재상승하는 것은 미국 내 고용지표 악화와 인플레이션 둔화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악화하고 금리 동결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미 노동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3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동월 전망치인 8만3000명 증가를 크게 하회했다. 앞서 발표한 5월·6월 고용도 각

각 12만9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5만7000명에서 2만명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전망이 빠르게 악화했다.

이어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된 7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을 기록했다. 6월의 3.5%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수준으로, 금리 인상 전망을 이끌었던 지난 4월·5월의 가파른 인플레이션율이 주춤했다.

◆‘디지털 금’ 엿말…비트코인 악세

국제 금값이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한때 ‘디지털 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자리다. 가상자산 시장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7일 자정 기준 1BTC당 6만3120달러에 거래됐는데, 이는 이달 초의 6만2899달러와 비교해 0.35% 상승에 그친 것이다.

비트코인은 한때 복제가 어렵고 발행 수량이 제한돼 있다는 특성에 주목해 ‘디지털 금’으로 불렸다. 비트코인의 가격도 안전자산인 금처럼 거시경제를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급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도 좀

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지연도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안으로, 미 공화당은 8월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으나 미 민주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입법이 불발됐다. 공화당은 9월을 새 입법 목표로 제시했지만, 11월 초 중간선거가 예정된 만큼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내에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내에 자금 유입이 불충분하고, 규제 완화 기대감도 후퇴해서다.

금융분석 전문가인 울프리처치의 린스버그 전략가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반등했지만, 이는 올해 초 나타났던 상승세보다 훨씬 약하고 가격은 여전히 완전한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로는 단기·중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할 만한 논리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행사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오른쪽)과 송현석 인천광역시 정책수석(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인천광역시 2500억 지역 금융지원

동반성장 업무협약 등 3건 협약

하나은행이 인천광역시와 손잡고 서민·청년·소상공인 지원부터 미래 전략산업과 혁신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지역 금융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문화, 에너지)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 총 3건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청년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과 성실상환 취약차주 원금 상환,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특별출연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에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입지·교통·학군 ‘3박자’… “신안산선 개통시 교통 더 편리”

부동산 현장 르포

용산 ‘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일원에 문을 연 ‘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유닛은 전용 59㎡ D타입 한 개로,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아기를 업고 온 부부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견본주택을 찾아 유닛을 둘러보고 분양 상담을 받고 있었다.

씨밋 클라비온은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신길뉴타운 10구역 재건축 단지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0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주택형은 전용 44~84㎡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44~59㎡ 7개 타입, 1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약 1만 6000가구가 조성되는 신길뉴타운의 첫 ‘씨밋’ 브랜드 단지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교통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7호선을 이용하면 가산디지털단지와 논현, 강남구청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을 갖추게 된다. 여의도까지는 3정거장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근 대림역과 보라매역을 통해 2호선과 신림선도 이용할 수 있다.

대림초와 대영초·중·고, 영신고 등 학교가 많다. 신길근린공원과 보라매공원,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등 녹지·체육시설도 가깝다. 타임스퀘어와 더현대 서울, 여의도 IFC몰 등 영등포·여의도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견본주택에는 타워형 구조인 전용 59㎡ D타입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수납



견본주택에 마련된 ‘씨밋 클라비온’ 단지 모형도.

대우건설 시공 신길 10구역 재건축 지하 4~최고 29층, 8개동, 812가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 단지

전용 59㎡ D, 거실·주방 시야 트여 면적 대비 내부 널찍해 ‘만족’ 평가 분양가 11억9840만~18억6630만원

장이나 창문을 열어보고 관계자에게 읍션 사항을 물어보며 유닛을 꼼꼼하게 살폈다. 전용 59㎡라는 면적 대비 내부가 널찍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씨밋’만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거실과 주방 사이 시야가 트여 있어 공간이 비교적 넓게 느껴졌다. 거실 전면에는 대형 창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안방도 침대와 가구를 배치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편이었다.

전용 59㎡ D타입에는 인방 드레스룸과 파우더장, 불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유상옵션을 선택하면 드레스룸에 슬라이딩 도어와 조명, 시스템 선반을 추가할 수 있다.

커뮤니티시설은 지하에 집중 배치된

다. 분양 관계자는 “800여 가구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을 조성해 가구당 약 1.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신풍역이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닛 내부를 둘러보며 시설과 옵션을 꼼꼼하게 확인하던 오형섭씨(49)는 “씨밋이 적용되는 단지라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며 “전용 59㎡치고 넓어 보이고 밝고니 공간도 충분하다. 마감제도 좋은 제품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아트월 히든도어나 방음 특화 같은 차별화된 설계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보기에는 특별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분양가는 입지를 고려하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거주하는 동대문구도 아파트 가격이 15억원 정도”라며 “신길뉴타운의 입지를 고려하면 분양가가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자녀와 손녀를 데리고 견본주택을 찾은 이순씨(70)는 단지가 들어서는 입지를 높게 평가했다. 신풍역 인근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이씨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주



‘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전용 59㎡D형 거실.

/성채리 수습기자

분양 캘린더

신길 씨밋클라비온 등 주간 3788가구 분양

8월 셋째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7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2469가구나.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씨밋클라비온’, 서울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자이르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 재건축한 ‘씨밋클라비온’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44~84㎡,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4~59㎡, 17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신풍역은 신안산선 개통(2027년 목표)이 예정돼 있다.

모텔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역서희스타힐스여의재(1단지)’, 인천 서해구 검암동 ‘검암역푸르지오프라يم뉴(공공분양)’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3개동, 17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내부순환로, 연희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성채리 수습기자 cr56@